



# 아빠는 좋은 추억인데, 엄마는 아픈 기억?

코로나19 시기 남녀 재택근무 경험으로 본 바람직한 일-가정 양립 위한 ‘룰’

돌봄 기대와 부담이 가족과 사회, 남성과 여성 간에 적절하게 배분돼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도가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재택근무와 일-가정 양립의 장단점

코로나19 팬데믹이 몰고 온 여러 변화 중 하나는 재택근무(Remote Work)의 확산입니다. 미 워싱턴의 정책연구소 경제혁신그룹(Economic Innovation Group)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구의 20% 이상이 재택근무를 한 미국 내 지역이 42곳 이상입니다. <sup>1</sup>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한국에서도 재택근무 경험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9년 9만5000명(전체 취업자 대비 0.3%)이던 재택근무 이용자가 2021년 114만 명(전체 취업자 대비 4.2%)으로 12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sup>2</sup>

재택근무는 유연하고 가족 친화적인 근무 방식으로 여겨집니다. <sup>3</sup> 회사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일하면 일과 가족 돌봄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경계가 어느 정도 해소됩니다. 직장 업무와 가족 역할을 수행하며 겪는 갈등과 딜레마를 완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전통적 성(性) 역할에 대한 인식이 강한 사회에서는 재택근무가 오히려 여성의

일과 돌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 재택근무가 갖는 긍정적 효과로는 재택근무가 어린 자녀를 둔 취업 여성의 돌봄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켜 준다는 점이 꼽힙니다. 출퇴근으로 인한 이동 거리가 감소하고, 여기서 아낀 시간을 근무 시간이나 가족 돌봄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재택근무의 장점입니다. 재택근무자가 일반적인 출근자보다 근무를 일찍 시작하고 점심시간을 짧게 쓰는 점은 특히 기업을 반기는 대목입니다. 또 재택근무자가 시간 외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효율성과 생산성이 크게 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재택근무의 부정적 측면으로는 자녀 돌봄이나 가사 노동으로 근무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고, 재택근무자의 근무 여부를 살피는 각종 통제 기제가 거북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라는 게 결국 자율적 근무가 가능한 일부 전문가 집단만이 선택할 수 있는 근무 형태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이전 재택근무는 특수 직종과 근무

<sup>1</sup> <https://eig.org/the-uneven-geography-of-remote-work/>

<sup>2</sup>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확산과 경기완충 효과, BOK 이슈노트, 2022년 1월 20일

<sup>3</sup> 본 브리핑은 다음 논문을 원자료로 작성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재택근무가 남녀 취업자의 일-가족 양립에 미친 영향」, 전지원 외, 한국인구학 제 45권 제 3호, pp.27~50



엄마와 아빠의 '코로나 재택근무 추억'은 어떻게 다를까? 서울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는 코로나19 기간 재택근무를 한 적 있는, 0~12세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경험을 연구했다.

시스템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됐습니다. 때문에 과연 재택근무가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웠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재택근무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비로소 이 주제를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 0~12세 자녀 둔 맞벌이 부부의 재택근무 경험

서울대 국제이주와포용사회센터는 '코로나19와 한국의 아동돌봄 설문조사'<sup>4</sup>를 실시했습니다. 2021년 3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만 0~12세 자녀를 둔 전국 기혼 남녀 201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아동 돌봄, 취업 상황, 재택근무 여부, 돌봄 분담 및 돌봄 시간, 일·가정 관련 스트레스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와 일·가정 양립 연구를 목적으로 전일제 취업자이면서 맞벌이 가구인 815명을 따로 분석했습니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40.8세이며, 전반적으로 고학력자였고 사무직이거나 전문직이었습니다.<sup>5</sup> 응답자 대부분이 1,2명의 자녀를 뒀으며, 막내 자녀의 연령은 0~12세 사이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습니다.<sup>6</sup>

특히 이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자를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해 재택근무가 일·가정 양립에 미친 긍정적/부정적 효과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났는지 검토하고, 재택근무의 맥락이나 기간 등의 조건에 따라 일·가정 양립에 다른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의 일·가정 갈등 완화에 기여하기 위한 '재택근무의 조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조사 대상자에게는 크게 4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첫째,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관련해 '일과 육아의 병행이 너무 힘들었다'는 문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둘째, '최근 3개월간 귀하의 근무 상황은 어떠했습니까?'라는 문항으로 재택근무 여부와 그 기간을 파악했습니다.<sup>7</sup> 셋째, 자녀의 휴원/휴교 시 주 돌봄자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낮 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자녀 돌봄을 주로 누가 담당했는지'를 질문해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가 반반씩 혹은 번갈아 △조부모, 친인척 등 기타 △긴급돌봄 및 유급 돌봄서비스 중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넷째, 인구·가구·사회경제적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응답자의 연령, 교육 수준, 자녀 수,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 등을 질문했고, 경제적 상황은 '현재 귀댁의 가구 소득은 의식주, 교통, 통신비, 기타 필요 등 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합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파악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맞벌이 부부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림1) 남성은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었다'는 응답이 각각 36%, 42.5%였고, 여성은 각각 46.7%, 40.2%로 응답했습니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에서 여성과 남성은 10%포인트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휴원/휴교 시 낮 시간에 주로 자녀를 돌본 사람은 조부모와 친인척이었습니다. (그림2) 남녀 모두 '조부모, 친인척 등 기타'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남성 35.3%, 여성 45.7%).

그런데 여성 취업자는 조부모와 친인척 다음으로 자신을 낮 시간 동안 자녀의 주(主)돌봄자였다고 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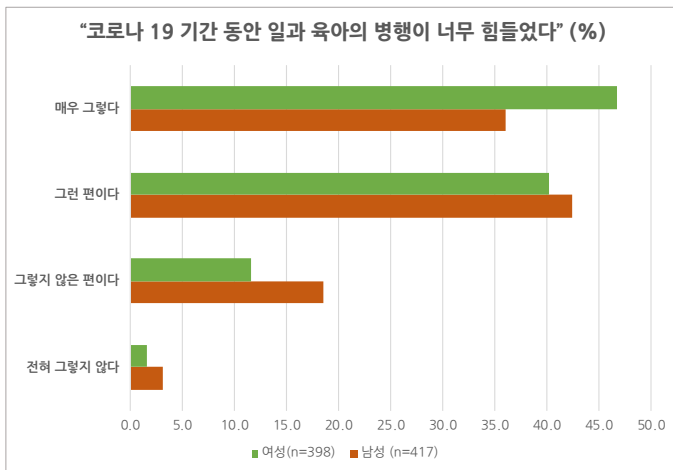
<sup>4</sup> <https://ctms.or.kr/resources/data?uid=4&mod=document&pageid=1> 참조

<sup>5</sup> 대학 졸업자가 남성 75.8%, 여성 81.9%, 대학원 졸업자가 남성 18.9%, 여성 12.3%, 사무종사자는 67.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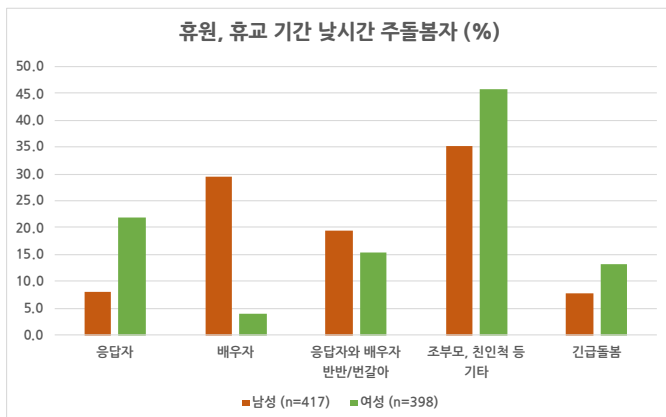
<sup>6</sup> 만 0~5세 36%, 만 6~8세 29.6%, 만 9~12세가 34.5%.

<sup>7</sup> 조사 시점을 고려하면 여기서 최근 3개월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에 해당한다. 해당 기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시행됐던 시기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식당은 밤 9시까지만 운영되며 재택근무가 권고됐다.

은(21.9%) 반면 남성 취업자는 배우자 역시 취업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주돌봄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29.5%였습니다. 남성 자신이 주돌봄자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8.2%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여성의 경우 자신의 배우자가 주돌봄자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4%에 그쳤습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데 조부모 등 기타 돌봄 자원이 없을 경우 돌봄의 주요 부담이 여성에게 치우치는 현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림 1] 코로나 19 기간 기혼 맞벌이 취업자의 일-가족 양립에서 어려움



[그림 2]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휴원, 휴교 중 낮 시간 동안 자녀를 돌본 사람

### “안심은 됐지만, 업무에 방해돼”

응답자들의 재택근무 비율은 높지 않았습니다. 남성 응답자의 75.8%, 여성 응답자의 76.4%가 재택근무를 하지 않고 매일 직장에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4명 중 1명은 재택근무를 경험한 셈이지만, ‘매일 재택근무를 했다’고 한 경우는 전체의 1.5%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 집에서 근무하고 가끔 출근’한 경우도 2.3%에 그쳐 재택근무 경험자 대부분이 제한된 기간에만 집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택근무를 경험한 응답자들은 재택근무 기간은 남성의 경우 최근 3개월 동안 1주일 이하 33.7%, 2~3주 이하 36.6%, 4주 이상 29.7%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은 일주일 이하 36.2%, 2~3주 이하 31.9%, 4주 이상 31.9%로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재택근무를 경험한 응답자는 모두 195명입니다. 이들은 남녀 모두 높은 비율로 돌봄 부담을 호소했습니다. (표) 남성 재택근무자의 62.4%, 여성 재택근무자의 69.2%가 자녀 돌봄 부담 때문에 재택근무 중 업무 효율이 떨어졌다고 응답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자녀 돌봄을 하는 것으로 인해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도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남성 45.5%, 여성 51.1%). 한편 재택근무로 자녀와 함께 있을 수 있어 안심했다는 응답 비율이 매우 높아(남성 77.2%, 여성 83%) 코로나19 팬데믹과 돌봄 공백 상황에서 재택근무가 비록 돌봄 부담을 높였을지언정 부모에게 일정 정도 안심을 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표] 맞벌이 부부 응답자의 재택근무와 자녀 돌봄에 대한 주관적 경험 (단위 = %)		
재택근무시...	남성 (n=101)	여성 (n=94)
자녀 돌봄 부담으로 인해 업무 효율이 떨어졌다	62.4	69.2
돌봄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 스트레스를 받았다	45.5	51.1
밀린 일을 처리하기 위해 잠을 줄인 적이 있다	50.5	51.1
자녀와 함께 있을 수 있어 안심이 되었다	77.2	83.0

### 집에서 일하는 남녀 취업자에 대한 기대가 달라

지난 3개월 간의 재택근무 경험은 남성의 경우에서 서만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할 확률을 유의미하게 낮췄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이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왜 성별에 따라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요?

재택근무가 일·가정 양립 측면에서 갖는 대표적인 강점은 유연성(Flexibility)입니다. 그런데 여성은 유연한 근무 환경을 자녀 돌봄과 가사 노동에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남성은 보다 오래 일해 소득을 높이는 데 활용합니다. 즉,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남성은 여전히 일 중심으로 시간을 보내는 반면 여성은 재택근무 상황을 자녀 돌봄과 가사 노동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재택근무가 여성의 일과 가족 역할 병행의 어려움을 완화하는데 크게 도움되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재택근무를 경험한 응답자들 사이에는 재택근무 기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재택근무를 한 기간에 따른 재택근무 효과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남성의 경우 재택근무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비록 1주일 이하로 짧게라도 재택근무를 한 경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호소할 가능성이 줄었습니다. 4주 이상 장기간 재택근무를 할 경우에도 일과 가족 역할을 병행하며 겪는 어려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2주 혹은 3주 가량 재택근무 한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반면 여성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재택근무 기간이 얼마든 간에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택근무 경험과 남성의 일·가정 양립 사이에는 긍정적 영향이 관찰됐지만, 여성의 재택근무 경험과 일·가정 양립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남성의 경우 재택근무가 일과 가정의 통합 수준을 높여 일·가정 갈등을 완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재택근무가 오히려 업무와 돌봄, 가사 노동의 부담을 높여 재택근무의 긍정적 효과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시기의 재택근무가 일반적 재택근무 상황과는 다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기존 연구에서 재택근무가 일·가정 양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 맥락에는 모든 돌봄/교육 기관이 폐쇄돼 가족이 자녀 돌봄을 전담해야 하는 상황을 전제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각 가정의 가사 노동 및 돌봄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아이돌보미나 학원, 가사도우미, 심지어 조부모 등 기존에 의지해온 돌봄 지원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가족이 가사 노동 및 돌봄의 부담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잦았습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재택근무를 하는 부모가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만 집중된다면 유연한 근무 형태만으로는 일·가정 갈등 완화에 한계가 있음이 연구 결과 확인됐다.

그런데 흥미로운 대목은, 한국의 맞벌이 남성 취업자에게는 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재택근무가 일·가정 양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찰됐다는 점입니다. 재택근무를 경험한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게 비해 일·가정 갈등을 덜 경험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재택근무가 남성의 돌봄 참여 및 일·가정 양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가정 갈등을 예측하는 가장 핵심적 요소는 가사노동과 돌봄 등 가족 내 의무에 대한 기대 여부입니다. <sup>8</sup> 즉, 가사노동이나 돌봄에 참여해야 한다는 강한 압력이 없다면 일과 가족의 역할에서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여기에 비추보면 여성은 비록 재택 '근무' 상태라고 하더라도 자녀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등 '가족' 영역에서의 역할을 당연히 소화할 것으로 압박을 받는 경험을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에 비해 남성은 비록 '집'에 머물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자로서 수행해야 하는 '일'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았을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남성에게는 자녀를 돌보거나 집안일에 참여하는 등에 대한 압력이나 기대가 크지 않았을 수 있고, 따라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 느꼈을 수 있습니다.

#### 가족/사회, 남녀 간 돌봄 부담 적절히 배분돼야

이상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일과 가족 역할을 병행하는데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재택근무 그 자체보다는 '누가 돌봄을 담당하고 돌봄 부담을 어떻게 나누느냐'였습니다. 팬데믹 기간 엄마의 일·가정 갈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힌 해외 연구에서도 <sup>9</sup> 재택근무 기간 배우자와 돌봄을 분담할 수 있었던 여성의 경우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적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주돌봄자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당연하게 기대되고, 실제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된다면 유연한 근무 형태만으로는 일·가정 갈등 완화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존의 돌봄/교육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조부모나 유급 돌봄인력 등 외부의 도움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즉 여성 자신이 내내 주돌봄자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여성에게도 재택근무가 일·가정 역할을 양립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재택근무를 비롯한 유연근무제도가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면 가족과 사회, 그리고 남성과 여성 간 돌봄 기대와 부담이 적절하게 배분돼야 하는 것입니다.

<sup>8</sup> Greenhaus and Beutell, 1985

<sup>9</sup> Martucci, 2021

### 남녀 모두가 반기는 재택근무 만들려면

한편 ‘코로나19와 한국의 아동돌봄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 이전 취업 상태였던 여성 응답자의 20.2%가 코로나19 기간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점에서 미뤄볼 때 코로나19로 인해 일·가정 갈등을 크게 경험한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뒀거나 휴직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이번 재택근무 연구에 포함된 분석 대상은 어느 정도의 일·가정 갈등에도 불구하고 취업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택근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큼니다. 미 스탠포드대의 니콜라스 블룸 경제학과 교수는 “일터로의 전면 복귀라는 생각은 죽었다(The idea of a full return is dead)”라고 천명하

며 앞으로 재택근무가 일상적 근무 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한국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1년 재택근무 희망 여부에 대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18만 명의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원한다고 응답했습니다. 2018년 52만 명이 재택근무를 원한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재택근무가 일·가정 양립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도록 하려면 재택근무 그 자체보다는 일과 돌봄에 대한 기대와 분담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가장 큰 함의입니다. 향후 재택근무와 일·가정 양립의 관계를 탐색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돼 일과 돌봄을 보다 수월하게 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10  
‘사무실로의 완전 복귀는 죽었다... 재택근무만 유일하게 성장’, 2022년 1월 8일 NBC News

본 브리프는 한국인구학회 학술지 ‘한국인구학’에 게재된 「코로나19 시기 재택근무가 남녀 취업자의 일·가족 양립에 미친 영향 (전지원 외)을 원자료로 작성했습니다. 본 자료를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